왜 필요한가

"탈북민 포교, '작은 통일'과 같아"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다가올 통일 시대에 대비해 탈북민들과 거리감을 좁히고 민족의 정을 나누는 것은 '작은 통일'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나눔 문화사업을 활발히 펼쳐가는 것이 종교계에 주어진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명절 마다 탈북민을 초청해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선물세트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탈북민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사찰 내 다양한 행사에 초청, 일반인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최근엔 탈북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다.

무원 스님은 "신도들의 보시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물품 지원이 아닌 의식주, 즉 근본적 생계 보장을 위한 후원이 선행돼야 한다. 스님과 사찰이 먼저 앞장설 때 신도들도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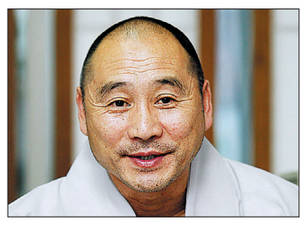
특히 무원 스님은 탈북민과 인간대 인간으로 마주하며 유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불교를 알리고 포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남한 땅에 친구도 친척도 없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적 대화겠지요. 손잡고 당장 절에 데려가야겠단 조급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원 스님은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가야할 길은 멀다고도 말했다. 무원 스님은 "물량공세에 집중하는 것보다 정서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교계의 강점"이라며 "그러나 개신교 등 이웃종교는 탈북민과 자주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자주 보면 정 든다'는 말도 있듯이 이 점은 분명 배워야할 점"이라 말했다.

박아름 기자

"그들 돕는 것, 우리의 사명"



수원사 주지 세영 스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탈북민은 절대 남이 아닙니다. 이들을 돕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불자들 모두의 과제입니다. 시대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주길 바랍니다."

수원사 주지 세영 스님은 여주 신륵사 주지로 재임할 당시 홍성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상임포교사로부터 '탈북민 가정체험' 요청을 받으며 탈북민 문제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당시는 탈북민이 1달에 1회 일반인들의 가정서 1박2일 숙식하는 '가정체험'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신도들이 없었지만, 스님은 종무원들과 일부 신도들에게 '반강제'로 동참을 권유했다. '참된 권위'의 행사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탈북민들과 1박을 보내고 돌아온 불자들은 환희심을 느끼며 행복해했다.

세영 스님은 수원사로 거처를 옮긴 후에도 탈북민 지원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돈이 없어 남편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지 못한 탈북 여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납골당 비용과 49재 비용 일체를 지원했다.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 사상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탈북민 뿐 아니라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구나, 그랬지. 얼마나 힘들었니' 하며 공감해준다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영 스님은 최근 수원사 바로 옆 2층 건물을 매입했다. '탈북 여성 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10월내에 탈북민 법회도 창립하며 탈북민 포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佛法 아래 작은 통일 〈2〉 현황 및 문제점

탈북 불자들, 어디로 가야하나…



2014년 2월 12~13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속 교육생 122명이 '가정체험'을 위해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 방문했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의 한 원룸서 40대 탈북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집주인이자 여성의 연인이었던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진 바 없지만, 싸늘한 주검은 최소 7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선을 넘어 남한 땅으로 건너온 북한이탈주민 2만9,688명(통일부, 2016년 8월 기준). 그들은 과연 이곳서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행복을 찾았을까. 현실은 상상과는 달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올 3월 발표한 탈북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고 한 응답자가 20.8%에 달했다. 또한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입북자가 16명, 이민출국자 33명, 제3국 위장망명 신청으로 보호 중지된 자 53명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탈북민들의 '탈남(脫南)'은 차별과 편견, 정착 실패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취업도 녹록지 않은 현실서 '탈북민'이란 꼬리표는 이들을 '편견과 차별'의 구렁텅이로 더욱 몰아넣는다.

이 가운데 한국 종교는 민간단체 중에서도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부적응을 해소하고 정착을 돕는데 선구자 역할을 했다. 각 종교의 성향과 철학을 바탕으로 정서적 지원에 앞장,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한국사회서 자아정체감 형성 및 사회 적응을 도왔단 평이다.

불교계에선 (사)좋은벗들(이사장 법륜)과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춘광), 통일바라밀숲(대표 남지심) 등 단체들이 탈북민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사단 내에 '통일팀'을 꾸리고 탈북민 포교를 전담했다. 통일팀은 현재 서울·인천 지역단내 총 3개 팀 50여명으로 구성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서 탈북민 대상 법회와 상담을 실시한다.

불교계의 탈북민 지원 정책 및 포교는 이제 막 기지개를 폈단 점에서 고무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등에서 미약하단 견해가 많다.

절 가고 싶어도 포기하는 탈북민 多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이하 정착지원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망명한 탈북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통일부 소속 교육기관으로, 탈북민들은 이곳서 3개월 기간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특히 법당·교회·성당이 설치돼 탈북민들에게 가족을 떠난 슬픔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정서적 지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들이 한국 종교를 처음 접하는 기회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이곳서 취향에 맞는 종교를 선택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창기엔 개신교를 찾는 탈북민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최근엔 법회 참석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단 전언이다.

그러나 정착지원사무소 밖 사정은 다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발간한 〈2015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2007년 후 입국 탈북민) 총 1만140명 중 기독교가 4,801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1,151명(11.4%), 천주교 1,101명(10.9%) 순이었다. 무종교는 3,051명(30.1%)이었다.

이 결과는 정착지원사무소서 불교에 의지했던 탈북민들이 수료 후에도 신행생활을 이어가지 못함을 반증한다. 북한에선 종교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갑작스레 닥친 종교의 자유는 어렵게만 느껴질 터. 절에 가고 싶어도 어디로 갈지 모르거나 혹은 시선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권태근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통일팀장은 "탈북민들은 정착지원사무소를 수료한 후 전국 곳곳으로 흩어진다. 그런데 현재 불교계서 불자 탈북민 모임이 조직된 곳은 서울 불광사가 거의 유일하다"며 "절 문턱을 넘어서기 어렵게 느끼는 그들을 위해 불교계가 먼저 모임을 조직해주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그쳐

탈북민 정서 지원을 위한 불교계 대표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와 명절 합동차례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가 해마다 탈북민 대상 템플스테이 및 합동차례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찰이며, 이밖에 불교계 산하 복지시설서 명절마다 탈북민을 위한 합동차례를 산발적으로 운영한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

정착 못한 '탈남자'도 많아져

차별·상대적 박탈감 큰 이유

종교, 정서 지원 '선구자'

이웃 종교 비해 시스템 미약

유대감 형성해 '탈 불자' 막아야

템플스테이는 탈북민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합동차례는 유교와 불교의 공통분모로써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단 점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시적 행사로 그쳐 탈북민들이 불교를 깊이 알고 불자로 전향하기엔 무리가 있단 지적이 많다. 특히 템플스테이는 탈북민 특화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관점도 제기된다.

김금희 前 나누며하나되기 과장은 "가장 아쉬운 점은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일회성 프로그램은 불교에 접근하게 할 순 있지만 불자로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 탈북민들은 우리 정서와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교육·취업알선 지원 全無

민간단체들은 탈북민 지원 초창기에 대부분 물리·금전적 지원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탈북민들의 상대적 빈곤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 각 종교계 경제 기반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탈북민들에 대한 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실시, 그들의 실질적 생계유지를 위한 원조에 나섰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은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해 특화된 대안학교의 확대가 절실했다.

종교계에선 개신교가 탈북민 교육 분야에 앞장섰다. 개신교서 창설한 탈북민 전문교육기관은 △(사)굿피플의 자유시민대학(前 굿피플대학, 2002년 개교) △사랑의 교회의 반석학교(前 느헤미야학교, 2006년 개교) △장대현교회의 장대현학교(2014년 개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교계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이 2014년 12월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안학교인 삼정학교(교장 채경희)에 1억1500만원을 기부한 사례는 있지만, 탈북민 교육기관은 전무하다.

남지심 통일바라미숲 대표는 "이웃종교가 물질적 지원은 물론 탈북민 교육, 취업알선 등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반해 불교계는 너무 미약하다"며 "미래 통일 시대에 북한민들에게 불교를 알릴 탈북민들에게 교육·취업알선·의료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불교계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이시대 최고 선사들의 법문 대향연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

명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잃어버린 '참나'를 찾아가는 최상근기의 수행, 간화선에서 해답을 듣다.

"심오한 깨달음, 정혜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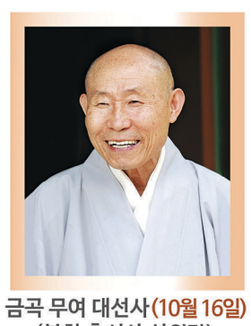
일시 : 2560(2016)년 10월 15일(토)~21일(금)오전 10시
장소 : 대구 동화사
문의 : 02) 922-9967 / 053) 980-7900

불기2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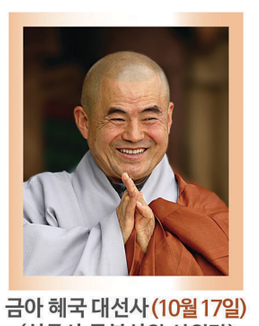
간화선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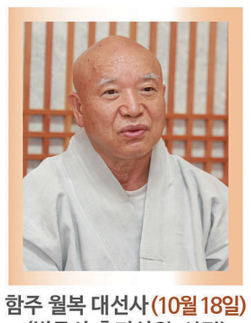
진제 법원 종정예하 (입재일, 10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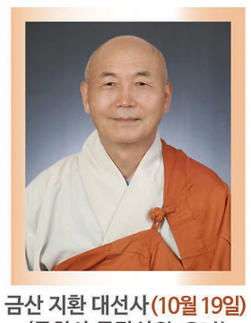
금곡 무여 대선사(10월 16일) (봉화 축서사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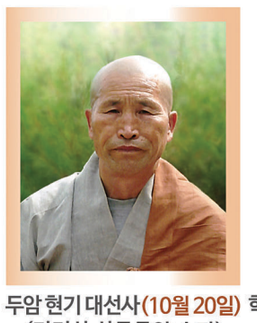
금아 혜국 대선사(10월 17일) (석종사 금봉선원 선원장)



함주 월복 대선사(10월 18일) (법주사 총지선원 선덕)



금산 지환 대선사(10월 19일)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두암 현기 대선사(10월 20일) (지리산 상무주암 수좌)



학산 대원 대선사(회향일, 10월 21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주최 :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 재단법인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주관 : 동화사 · BBS 불교방송 미디어주관 : BBS 불교방송 · 한국불교대표방송 BTN